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 독후 활동지



이금이 글 | 한지선 그림
밤티 | 164쪽 | 초등 3-4학년 | 밤티 마을 1

“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밤티 마을 이야기’의 첫 권,
‘정상 가족’의 통념을 깨뜨린 한국 아동문학의 고전 ”

활동

밤티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이 책의 주된 배경은 바로 '밤티 마을'입니다. 아래 질문들에 답해보며 이곳에서 만나게 된 여러 인물들, 풍경들과 더욱더 친해지길 바라요.

1. 아래의 글은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의 첫 문장으로, 큰돌이네 집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큰돌이네 집 식구들은 이야기 내내 힘을 모아 집 이곳저곳을 고치고, 또 새로 짓기도 했지요. 달라진 큰돌이네 집의 모습을 여러분은 알지요? 여러분이 큰돌이네 집을 새로이 묘사해 보세요.

밤티 마을에 가면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는 집을 볼 수 있지요. 바로 큰돌이네 집입니다.

.....

.....

.....

2. 큰돌이는 아이들에게 이름으로 놀림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는 놀림을 받아도 더 이상 약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큰돌이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나요?

.....

.....

.....

3. 이 책의 곳곳에는 책의 장면들을 그린 정겨운 그림이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밤티 마을의 구석구석, 주인공들의 표정과 목소리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혹시 이 책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책을 읽으며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나요? 또는 책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직접 그려보고 싶은 장면은요? 그러한 장면을 한가지 골라보고, 다음 장에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내가 그리고 싶은 장면:

.....

.....

활동2 알쏭달쏭 내 마음

가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되게 행동하기도, 딴청을 피우기도 하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아래는 책에서 발췌한 인물들의 '알쏭달쏭한 마음'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큰돌이는 왜 썩골 할머니네서 나는 웃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둘은 빈 사료 포대 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밤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썩골 할머니네 집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어요. 큰돌이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영미에게 말을 건넸어요. (25쪽)

2. 큰돌이는 왜 팔쥐 엄마를 도와주는 게 싫으면서도 좋았을까요?

"호스를 잘 대야지. 나한테도 튀잖어."
팔쥐 엄마는 큰돌이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됐다. 빨랫줄 좀 내려 줄래?"
큰돌이는 바지랑대를 내려 빨랫줄을 낮추었어요. 팔쥐 엄마를 도와주는 게 싫으면서도 좋았어요. (104쪽)

3. 영미는 왜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다 보물 상자를 채웠나요?

영미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이 나쁜 짓인 걸 알고 있었어요.
'상자만 가득 차면 하지 않을 거야.'
영미는 상자를 닫을 때마다 다짐하곤 했어요.

활동3 내 인생의 우선순위

1. 아래의 글처럼, 큰돌이는 공부만 잘해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영미도 마찬가지로요. 양부모님 댁에서 좋은 장난감도 많이 갖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도 있고, 하나뿐인 동생도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걸까요. 큰돌이는 새 방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어요. (121쪽)

2. '우선순위'란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의 순서'를 말하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래 질문을 따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 볼까요?

-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모두 나열해 보세요. (가족, 사랑, 친구, 공부, 등등)

- 위에서 적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를 뽑아 순서를 정해 보세요.

- | | |
|----|----|
| 1. | 4. |
| 2. | 5. |
| 3. | |

- 위에서 정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요.



활동4 우리도 가족인가요?

'가족'의 개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나 넓어지기도 해요.

현재 국어사전에서 '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에,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완전할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충분히 아우르고 있을까요?

아래 발췌한 기사와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에 관해 토의해 보세요. 더 조사해 봐도 좋아요.

(A) "누구 사진이야?"

영미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지금 어딴데?"

"하늘 나라에."

"전엔 이 아기가 엄마 아빠 아이였지만 지금은 영미가 엄마 아빠 아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실을 잊지 마."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 98쪽)

(B)

여주시 금사면의 시니어 공유 공간 '노루목 향기'에는 68세 동갑내기 노인 3명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다. 세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을 이뤘게 되었다.

(출처: KBS1 다큐ON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편)

(C)

"저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각각의 아픔을 가지고 보육원에서 만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지금까지 쪽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바라보는 이 눈빛들 보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 다음의 질문이 토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 국어사전에 있는 가족의 정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내용을 더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사회가 정의한 '가족'의 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을까요?
- '법적 혼인 및 혈연관계'가 가족의 정의에 꼭 필요한 조건일까요?

토의 주제:

토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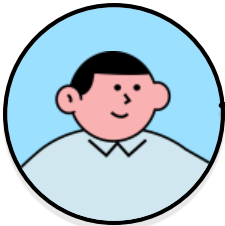
①

②

토의 주제에 대한 다른 친구의 생각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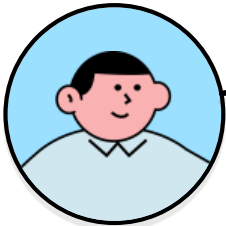
활동5 어른과 함께 읽어요

1.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은 1994년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그때 이 책을 읽었던 어린이들은 지금 훌쩍 큰 어른이 되었겠지요. 이 책을 주변의 어른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어요. 아래는 3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자란 한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눈 가상의 대화입니다. 이를 읽고 빈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 보세요.



선생님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선생님이 나고 자란 동네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어린 영미를 동네 사람들이 거둬주던 모습이 몽글했어요. 불러서 밥도 주고, 세수도 시켜 주고. 참 정이 많았지요.

저도 밤티마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자란 동네의 모습은,



인물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나랑 참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있나요? 선생님은 큰돌이가 차비로 굳것질하고서 먼 길을 걸어 집에 돌아가는 부분을 보고 참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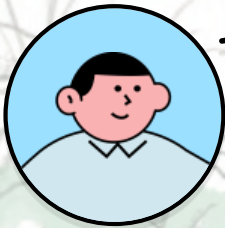


2. 이번에는 내가 어른과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화 내용을 아래 적어 보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A large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arge yellow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arge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arge yellow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활동6

이웃 관찰 일지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은 이금이 작가의 이웃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웃 아이들의 이야기는 영미와 큰돌이를 탄생시켰지요.

여러분은 이웃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룻동안 우리 주변의 이웃을 관찰해보고 아래의 이웃 관찰 일지를 작성해 봅시다.

이웃 관찰 일지

관찰 일시:

● 내가 관찰한 이웃:

●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웃의 모습:

● 관찰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이웃의 모습:

● 아직 모르지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덧붙여 상상해보는 이웃의 모습:

